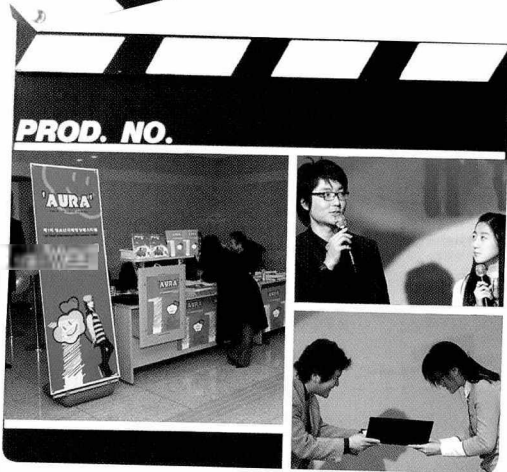


‘성(性)’을 모토로 해 화제가 된 제1회 청소년국제영상페스티벌 ‘아우라’ 개최 이후
 청소년 그들만의 ‘성(性)’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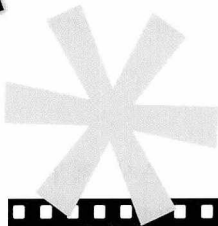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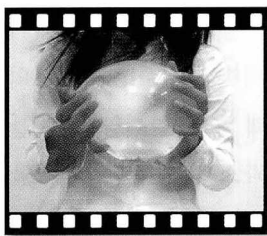


2006년 11월 30일 공진 청소년시립수련관 ‘시골’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던 <제1회 청소년국제영상페스티벌 ‘아우라’>는 기존의 영화제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별한 문화 축제였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성(性)’에 관한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담은 작품들을 선정해 상영한 세계 최초의 ‘성(性)’ 영화제로,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과 연수소를 세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글 김신혜 작가·영화감독

전체 18편의 상영작 중 8편은 사전제작 워크숍 작품으로, 영상제작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순수한 의지로 참여 의사를 밝힌 14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들과 문화나 교육 기회의 부재 속에 있는 소외된 계층의 청소년들이 제작에 참여했는데, 전문가의 지도 아래 성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진술하고 진지하게 논의한 후 주제와 소재를 선정한 후 작품을 제작하도록 했다. 국내외 초청작 역시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14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제작한 작품 중 신선한 발상과 시각으로 성과 관련한 문제들 다룬 작품 10편을 선정해 상영했다. 상영작품들을 살펴보면 기성세대의 우려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성(性)’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심도 깊은 고찰을 통해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제작 워크숍을 통해 제작된 ‘사랑한다 우리야’ (감독/ 서울 문영여자고등학교 신정분)와 국내 초청작인 ‘비탈을 건대’ (감독/ 전주 신흥고등학교 최예은)는 상관계를 갖게 된 고등학생들이 이룬 성성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

리 가지분제들 중 임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성관계 후 남학생과 여학생이 보이는 상반된 모습과 책임과 아픔과 갈등과 극복에 대한 이야기까지 상황과 심리를 심도 있게 작품에 담아내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 관객과 함께 진솔하고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펼치기도 했다.



사전제작 작품인 '야심천만, 고깃이 알고 싶다' (한준영 외 3인 공동연출)은 인터뷰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시각을 신선하게 영상에 담아내 돋보였고, 국내 초창작인 '윤계 하소서'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종근)는 부모님의 눈을 피해 인터넷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려다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재기 넘치게 다뤄 공감을 얻은 작품이다. 역시 국내 초창작인 '소녀들의 저녁식사' (안양예술고등학교 최두영 외 3인 공동연출)도 세 소녀가 몰래 올린 비디오를 보려다 벌어지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담아낸 작품이다.

국내초청작 '얼얼곰, 너의 이야기' (감독/ 한국에니메이션고 김평화)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 성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며 여고 2년생이기 전에 한 여성으로 자아를 갖게 되는 성장영화로 무기운 주제를 짜임새 있고 담백하게 담아낸 전이 돋보인다.

해외 초창작인 '양쯔강의 에이즈 고아 The Blood of Yingzhou District' (감독 / 루비 양 Ruby Yang / 2006/중국, 미국/다큐멘터리/39')은 현재 베이징과 뉴욕에서 진행중인 중국 AIDS 미디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로서, 홍콩 태생의 루비 양 감독이 연출하고 아카데미상 후보 경력의 토머스 레논 감독이 세작했다.

양쯔강 가인후이 지역은 질병으로 가족과 마을의 유대감이 무너진 지 오래다. 가난 때문에 피를 팔았다가 에이즈에 걸려 죽은 부모를 둔 가오준은 영화의 끝부분 직전까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그의 나이조차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 다큐멘터리가 가오준이 편견과 무시 속에 친척집을 전전하며 함께 살 가족을 찾는 과정을 현실적이고 감동적으로 담고 있다.

사전제작 작품 중 '단 한번의 실수'도 호기심을 못이겨 성매매를 통해 성관계를 하게 된 한 고등학생이 에이

즈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갈등하는 과정을 담아낸 작품으로 정보 전달과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치밀한 취재를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해외 초청작 중 옴니버스 영상인 '30초: 영상 목소리 30 seconds: A Visual Voice'는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제작한 30초 길이의 영상을 모아 편집한 영상으로 곤충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 수직심을 줄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개방성 '영상프로젝트'이다. '곤충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13세-24세)들은 30초 길이 준수, 성적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곤충 등장, 대사 없이 사운드와 영상으로만 진행되는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3가지 조건에 맞춰 영상을 제작해야 한다. 현재 '곤충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국가는 부르키나 파소, 이디오피아, 나이지리아, 인도, 태국, 미국이며 30초 영상은 계속 제작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성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편견 (합태교 외 2인 공동연출), 매달 찾아오는 생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룬 '생리대가 필요한 날'(감독/안동여자고등학교 정나아)도 소재와 주제의 폭을 넓게 비라보고 섬근한 시각과 신선한 이야기 전개가 뛰어난 작품들이다.

1회라 단 하루의 상영으로 영화제는 끝이 났지만 그것 씬음의 과정은 제법 큰 것 같다. 다양한 대중매체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주체인 청소년들도 영화제에 참여하고 관람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다. 이것이 옳다. 그러나 하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 소외되고 외딴고치는 식의 성교육과 성년문화는 이제 그만!

청소년국제영상페스티벌 '아우라'는 '성(性)'이라는 만만치 않은 주제를 앞세우고 있지만, 어려운 시작이고 어려운 시도이기애 그 끝은 더욱 창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함께 터놓고 이야기 하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 청소년국제영상페스티벌 '아우라'는 '성(性)'이라는 만만치 않은 주제를 앞세우고 있지만, 어려운 시작이고 어려운 시도이기애 그 끝은 더욱 창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함께 터놓고 이야기 하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자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성장해 가길 기대해 본다.



진정한 소통의 장이자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성장해 가길 기대해 본다.

제1회 청소년국제영상페스티벌 '아우라'를 통해서 본 우리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은 참으로 건강하고 맑았다. '성'이라는 모토 아래 상범적, 성역할, 에이즈 문제에 이르기 까지 바라보는 시각과 이야기를 끌어낼 줄 아는 재능,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할 줄 아는 신중한 자세까지... 기성세대를 놀라게 하는 많은 번모들이 보여 내심 안도의 숨고르기와 흐뭇한 웃음으로 영화제를 지켜볼 수 있었다. 벌써부터 제2회가 기대된다.